

# KWL & 하브루타 노트

과정명	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IaaS기반 웹 서비스(React,Node,Next,MLOps)개발자 과정			훈련주차	2 주차
작성일	2024/04/12	훈련교사	공욱재	훈련생 명	최유진

- ※ 아래의 항목에 대해, 스스로의 생각과 느낀부분을 자유롭게 작성하세요.
- ※ 커뮤니케이션 능력과, 생각 정리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, 성실하게 작성하세요.
- ※ 문장 완성 형태의 논술 방식으로 ‘다른이에게 이야기 하듯’ 작성하세요.
- ※ 해당 작성본은 훈련생 평가에 활용되며, 강사 및 운영관리자 외 대외비로 다루어 처리 및 보관됩니다.

## K. 알고 있는 것

이번주에는 flex와 grid를 통해 레이아웃을 나눠보는 연습을 했어. 또 기억을 더듬어서 연습했는데 오랜만이고 아직 능숙하진 않아. 나중에는 아주 능숙하게 레이아웃을 나누고있겠지 ?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화요일에 있던 정기평가를 통해서 더 많이 연습할 수 있었어.

아 정기평가 내용 중에 주석을 달아야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주석이 나중엔 팀원들과 소통하는데 있어서도,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도, 스스로에게도 중요한 걸 알고있었지만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와닿지 않아서 그런지 주석다는걸 잊어버리곤 해서 신경써서 달아야하는 점이 아직은 쉽지않은 것 같아.

그리고 Figma라는 툴을 배웠는데 레이아웃을 잡고 협업하는 데에 유용한 것이라고 들어만 봤던 툴이야. 처음으로 직접 배우고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였지.

## W. 알고 싶은 것

레이아웃을 나누는 방법으로 보통 grid와 flex를 사용하는데 언제 grid를 사용하고 언제 flex를 사용하는지 궁금해. 그냥 그 때 그 때 더 편리할 때가 있는 걸까? 아니면 그냥 본인에게 더 편리한 방법이 있는건가?

div를 통해 구조를 파악하고 나눈 것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관이 어떻게 있을지 (나중에 배우게되겠지만) 벌써부터 나의 호기심을 자극해버렸어 !

## L. 알게 된 것

레이아웃을 나누는 연습을 하면서 강사님이 한가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레이아웃을 최대한 잘게 나눈 다음 선을 지워나간다고 한 부분이 있었어. 오호 그것 또한 새로운 방법이네 ! 라고 생각했었어.

그리고 width, height값을 %로 잡게되면 부모에서 기준값으로 값이 선언되어 있어야한다는 것. width나 height를 %로 사용할 때 무심결에 그렇게 쓰긴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어. 그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 나온 vw, vh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 한번 사용해보려고 !

그리고 div와 같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서 정말 의외였지.

CSS에서 변수를 할당하는 방법도 배웠어. 앞으로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.

그리고 javascript를 맛보기로 배워보았는데 window.alert(“Hello”); -> 창문.경고하다(“안녕”) -> “브라우저야 경고창에 Hello라고 작성해서 보여줘.” 와 같은 접근방식이 내가 처음 접했을 때와는 또 다르게 다가와서 신선했던 것 같아.

## 수행중인 과업

이번주에 진행했던 정기평가를 완성해나가고있어 ! 거의 끝은 보이는 것 같아. 그치만 전체적인 레이아웃 툴을 완성하는 것 보다 더 나아가서 디자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디테일을 더 잡아서 완벽한 나의 것을 완성해보고싶어. 그리고 실제 홈페이지의 개발자도구를 확인했을 때 어떤 섹션들에서는 사진을 넣거나 할 때에 나와 다른 레이아웃으로 구현을 했더라고. 그런 걸 참고해서 내가 구현한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들로도 구현을 해보고싶어.

## 학습자 성찰

이번 첫번째 평가를 통해서 실제 홈페이지의 개발자도구도 확인해가면서 했었는데 저 레이아웃은 어떤식으로 구현했을까? 싶기도하고 그러면서 역시 아직은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. 앞으로도 많이 쓰이고 필요한 내용이니 그때마다 연습해서 하루빨리 능숙해지고싶다 !  
그리고 주석달기는 앞으로로도 계속 넣는 습관을 들여보려고 해. 생각날 때마다 넣어봐야겠어 ..!  
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면서 내가 알고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접근하다보니 느낌이 색달랐던 것 같아. 앞으로 새로운 코드 한 줄, 한 줄을 배울 때마다 이런식의 접근방법이라면 뭐든지 어렵지 않게 다가올 것 같아. 그러면서 오히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게 '고수준 저강도'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더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것이고. 또 이렇게 개발자의 마음가짐을 배우게 되었어.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가짐이지만 절대 부정적인 감정은 안들고 오히려 좋은 변화의 시작인 것 같아서 좋다 !

강사 코칭 (강사 작성)